

로버트 C. 뉴먼 박사, 공관복음서, 강의 9, 공관문제

© 2024 로버트 뉴먼과 테드 힐데브란트

우리는 공관복음 과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적 예수, 유대적 배경, 주석 입문 및 서사 장르, 저자, 복음서의 연대, 비유, 비유 장르, 문학 작품으로서의 복음서, 이제 주제에 이르렀습니다. 일곱 번째는 공관 문제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관 문제는 무엇입니까? 공관은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처음 세 복음서는 특히 요한복음과 비교할 때 거의 같은 관점에서 예수의 생애를 바라보는 것처럼 서로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많은 수수께끼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처음 세 복음서를 그렇게 유사하면서도 크게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첫 세 복음서 간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건에 관한 보고가 유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예수의 역사는 특이합니다. 많은 긴 연설이 포함된 3년이 넘는 사역 동안 단지 몇 시간의 연설만이 녹음되었고 수백 명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요약 구절에서 개별적으로 몇 가지 치유만이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복음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일반적으로 언급됩니다.

성경의 영감, 복음의 영감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유사점은 복사에 따른 것이고 차이점은 의도적으로 변경했거나 저자가 서로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글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문제의 현상이고, 그런 다음 문제의 역사에 대해 조금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몇 가지 제안된 해결책을 생각해낸 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가장 잘 작동합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언어적 동의와 불일치로 시작합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제 노트에 있는 것은

그리스어로 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한 열에는 마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마가, 그 다음에는 누가가 나옵니다. 유사점과 차이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살펴보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페이지 반이 조금 넘지만 예를 들어 비유는 시작됩니다. 씨 뿌리는 사람 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거나 그런 일이 있고, 마태와 마가는 처음에 작별 인사를 하지만 누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다. 세 명 모두 정확히 같은 동사, 같은 사람, 같은 시제를 갖고 있고, 그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씨 뿌리는 사람 , 씨 뿌리는 사람 이라고 부릅니다 . 비록 거기에 있는 thethee는 아마도 우리가 정관사의 일반적인 사용으로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 뿌리다, 씨를 뿌린다는 뜻으로 마태는 정관사 앞에 정관사를 사용하여 이를 수행합니다. 부정사, 그는 현재 부정사를 사용했습니다. Mark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 그는 부정과거 부정사를 사용하고 누가는 마가처럼 부정과거 부정사를 사용하지만 Matthe w와 같은 정관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자신의 씨를 뿌리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그리스어로 세 단어로 된 작은 문구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 모두는 다음 절을 chi로 연결하고 Mark는 추가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 진행하고 그가 씨를 뿌리는 동안 세 사람 모두 그 시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파종하는 동안 추가하고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례를 얻기 시작합니다.

매튜, 그 중 일부는, 여기 그리스어를 읽으려면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중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고, 마태는 그 중 하나가 길가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길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중 하나가 길가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Matthew가 각 경우에 대해 복수형을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씨앗을 좀 주세요. 알았죠? 마가와 누가는 둘 다 일종의 대표자를 사용합니다. 하나의 씨앗은 여기에 떨어졌고, 하나의 씨앗은 저기에 떨어졌습니다. 등등. 글썄요, 제 생각에는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을 뭐라고 해야 할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Henry Alford가 그의 그리스어 성서에서 이런 종류의 내용을 제공하는 짧은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상의.

그는 제시된 현상은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마도 3개, 5개 또는 그 이상의 동일한 단어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는 완전히 구별되는 많은 단어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는 두 개의 절 이상이 같은 단어로 표현되지만 순서는 다르며, 그 다음에는 하나의 절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 복음에는 없고 한두 가지에는 동일하며, 다음에는 완전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명백히 일관성이 없는 절 등이 반복되어 동일한 자의적이고 변칙적인 교대, 변경, 우연의 일치 및 전치가 반복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단어 단위로 살펴보면 다소 혼란스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관복음서에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언어적 변화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동일하거나 다른 표현의 빈도를 지적함으로써 이 단순한 일화적인 증거를 숫자로 변환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동사에 대한 일치는 거의 동일한 어근이 아니라 동일한 시제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립 샤프(Philip Schaff)는 그의 교회사에서 이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는데,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권의 책을 제시한 다음 열, 고유 단어의 수, 고유 단어의 백분율,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백분율을 제공합니다. 하나의 복음이 다른 두 복음과 일치하고 나머지 두 복음 중 하나와 일치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에는 40%의 고유한 단어가 있고, 마태복음에는 56%, 누가에는 67%의 고유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두 사람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의 22%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마태복음의 말 중 14%는 마가와 누가의 말에 모두 동의하고, 누가의 말의 12%는 마가와 마태의 말에 모두 동의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하나에 동의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둘 중 어느 하나에 동의하는지 지정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그 중 한 사람의 의견에 38%, 마태는 30%, 누가는 21% 동의합니다.

당신이 꽤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Mark가 다른 사람들과 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당신이 거기에 도달하는 그림입니다. 사건의 순서를 생각해 보면, 공관복음서의 사건 순서는 로버트슨처럼 복음의 조화를 취하여 그것을 살펴보고 사실상 항상 각 복음이 하모니의 연속 섹션.

그러나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버트슨의 43절에 있는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은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있습니다. 두 단위 아래에 있는 나병환자의 치유 사건은 마태복음에서 조금 더 앞섭니다. 나중에 Mark와 Luke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예수께서 실제로 어떤 일을 먼저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의 일부는 우리에게 타임머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같은 순서를 갖고 있지만 마태는 그 반대입니다. 아마도 둘 중 하나는 연대순이 아닐 것입니다.

글쎄, 내러티브는 연대순으로 배열될 필요는 없습니다. 국소 순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는 정기적으로 주요 연대순으로 나오며, 원할 경우 새로운 등장 인물을 선택하기 위해 갈라지고 등장 인물에 대한 약간의 배경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내러티브에 들어갑니다. 등장인물이 이야기를 떠날 때, 그들은 그가 한 일에 대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을 할 때 뭔가를 보게 될 악마 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이야기에서 처음 소개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를 제지하려다 포기했던 그의 역사일 뿐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풀려났을 때 데가볼리로 가서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일반적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서술 내에서 때때로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유혹, 마태, 누가의 유혹은 두 번째 유혹과 세 번째 유혹에 따라 다양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만찬에서 잔이 먼저 주어졌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텍스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잔 이상을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현재의 유월절 만찬을 아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예배에 네 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 때 그리고 나중에 사용하실 잔으로 사용된 것은 이들 중 어느 것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사건의 순서를 분별하려고 노력할 때 발생하는 문제 중 일부는 본문의 변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어느 쪽이 올바른 본문인지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유사한 사건이 있을 때, 원하신다면 그것들이 정말로 동일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사했던 두 개의 다른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언급했지만 더 많이 말하지 않은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인데, 이는 누가복음의 평상수훈과 같습니다. 글썬요, 산은 평야와 같지 않지만 그 이름은 일종의 지어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산 꼭대기에서 평탄한 곳, 즉 경사면 어딘가로 내려오셨고 그곳에서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다고 제안했습니다. 설교 등.

그러면 이 두 가지 다른 보고는 같은 사건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경우에 비슷한 설교를 한 것입니까?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타임머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보다 급진적인 해석자들은 두 번의 성전 정화가 동일한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서 중 하나는 그것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잘못 알고 있으며, 당신은 보다 진보적인 주석에서 그런 종류의 일을 아주 아주 자주 보게 됩니다. 마태와 누가가 마가에 반대하여 동의하는 사건 순서의 일치는 다른 조합에 비해 매우 드물며, 이는 공관복음 문제에 대한 특정 해결책을 주장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세 복음서 사이의 내용이 겹치고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학자들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 두 개, 세 개, 네 개 또는 다섯 개의 원이 있는 방식으로 가장 쉽게 수행됩니다. 원, 마태를 나타내는 원, 마가를 나타내는 원, 누가를 나타내는 원 그리고 원이 세 개가 모두 겹치는 영역, 세 개의 작은 꽃 모양의 꽃잎이 있는 방식으로 설정했습니다. 두 개가 겹치고 세 개가 서로 겹치는 일종의 달 모양 같은 것인데, 각 원은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그 안에 숫자를 넣을 수 있고 그게 바로 제가 초기 기독교에 대한 타이슨의 연구를 그런 종류의 차트로 사용하여 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깥쪽 섹션에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Mark에만 있고 Luke와 Tyson에만 있는 것은 절별로 수행합니다. 이는 나중에 다양한 구분을 만든 사람이 항상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Luke가 가장 큰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500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80절이 있고, 마가복음에는 50절이 있고, 그리고 완전히 겹쳐서 세 구절이 모두 합치면 약 480절이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절은 480절 외에 약 120절이 겹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170절 정도 겹치고, 마가복음은 20절 정도 겹칩니다. 이것이 이것을 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Alan Barr는 A Diagram of Synoptic Relationships라는 작품에서 색상을 사용하여 이를 수행하고 벤 다이어그램 대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있는 긴 스트립을 사용합니다. 제 생각에는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복음서가 나타나며 어디에서 그런 무리가 있는지, 어디에 퍼져 있는지, 그런 종류의 것들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초기에 암모니우스(Ammonius)라는 교부님이 섹션을 고안하여 각 복음서를 섹션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이른 것인지 모릅니다. 유세비우스와 유세비우스가 복음서가 겹치는 곳, 복음서의 자료가 겹치는 곳을 우리를 위해 스케치하기 위해 이것을 사용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암몬니우스가 만든 이 부분을 취하여 마태복음의 부분을 보고 이 특정 부분에 대해 마가나 누가와 겹치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네 복음서를 위해 그렇게 했고, 요한도 그랬습니다 .

그런 다음 동일한 종류의 중복 항목을 목록의 제목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세비안 카논, 즉 유세비안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네 복음서가 모두 겹치는 부분을 모두 나열한 목록 중 하나를 나열하십시오.

그리고 정경 2, 3, 4, 즉 2, 3, 4 목록에는 세 개의 공관복음이 겹치는 곳 , 마태, 누가, 요한이 겹치는 곳과 마가, 누가, 요한이 겹치는 곳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5, 6, 7, 8, 9는 중복되는 항목을 2개씩 나열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목록인 목록 10A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모든 내용이고, 10B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모든 내용이고, 10C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모든 내용이고, 10D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글쎄, 당신이 그 목록을 볼 때, 그는 그 각각의 항목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복음서가 모두 겹치는 항목이 약 74개 있습니다. 즉, 각각에는 모두 함께 겹치는 약 74개의 섹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록은 우리가 시놉틱스(synoptics)라고 부르는 목록으로, 111 개의 중복 항목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3개씩 있습니다. 마태, 누가, 요한은 22개 중복되고 마태, 마가, 요한은 25개 중복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가, 누가, 요한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목록을 작성하면 0이 됩니다. 그러면 쌍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매튜, 루크가 가장 큰 목록인 82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47. 하지만 마가, 요한은 아주 작습니다. 누가, 마가, 13.

Luke, John, 21세. 그리고 Mark, John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좋아요, 이 목록에서 중복되는 고유성 현상을 살펴보면 두 가지 가능한 조합이 목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마태, 누가, 요한이요.

Mark와 John이라는 두 세트의 한 세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경 2, 3, 4는 정확히 세 복음서가 겹치는 부분입니다. 시놉틱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John과의 겹치는 부분은 훨씬 더 작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두 복음서에 나오는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우세하고, 마태복음이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나중에 작가들이 Q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중복 요약. 마가복음의 거의 대부분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와 누가는 공통점이 많지만 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Q자료, 그리고 소위 Q자료라고 불리는 이 자료가 주로 담화 자료입니다. 거기에는 예수의 유혹이라는 단 하나의 이야기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각각 고유한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반면, 마가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상에 대한 일종의 간략한 스케치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언어 변형이 있는데, 복사라고 상상해 보면 누군가가 복사에서 꽤 상당한 편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서의 문제가 있고 그 순서는 일반적으로 꽤 동일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뭔가 반대되는 것, 즉 그런 종류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 보게 될 두 문서 이론의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원한다면 Q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볼 수 있도록 포함된 것들을 제외했습니다. 자, 여기서 공관문제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자마자, 아마도 60년대 초에 어느 정도 문제가 인식되었습니다.

세상에 하나의 복음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논쟁을 벌일 수도 있고 반대자들이 그것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두 가지를 갖게 되면 사람들은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반대자들은 한 복음을 다른 복음에 대항하여 사용하여 기독교를 공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Celsus라는 이교도 동료인 CELSIUS가 자신의 저서인 *The True Account*에서 하는 일입니다.

좋아, 그것은 부활절 무렵에 몇 년마다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이거나 누군가가 복음을 폭로하려는 것 같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단적인 공격, 즉 한 복음을 다른 복음과 대립시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공관복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에 대한 몇 가지 시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초기의 것은 타티아누스(Tatian)의 디아테사론(Diatessaron)으로 아마도 서기 170년경에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Tatian의 절차는 우리가 짜여진 조화라고 부르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사복음서를 취하여 기본적으로 반복이 없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네 복음서 중 하나의 자료를 선택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엮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기록을 가져와 하나의 이야기로 편집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유세비우스의 신조입니다.

따라서 340년경 이전부터 유세비우스는 암모니우스의 구분을 사용했지만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테이블은 병렬 계정을 인덱싱합니다. 그리고 많은 초기 복음서의 원고 왼쪽에는 이 특정 항목에 대한 섹션 번호를 알려주는 작은 표기가 있습니다.

섹션은 절보다 길고 장보다 짧으므로 숫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유세비우스의 정경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들의 정경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안다면 이에 대한 두 가지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네슬레 그리스어 신약성서 앞부분에 출판된 유세비우스의 목록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두 개의 유사점을 찾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유세비우스의 신조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공관복음 문제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책 길이의 토론은 서기 400년경에 쓰여진 어거스틴의 복음서 하모니입니다. 그는 복음서를 통해 사건 하나하나를 해결하려는 첫 번째 시도를 하며, 그것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래서 그는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에서 먼저 믿음을 시작하고 마태복음에서 유사점이 있는 모든 구절을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것을 조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제안할 내용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돌아가서 Matthew와 겹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동일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아는 한, 어거스틴은 공관복음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론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복음서가 기록된 연속 의존 이론(Successive dependency Theory)이라고 불리는 나중에 나온 버전입니다. 첫째, 쓰여진 두 번째 복음서는 그것을 활용하고, 쓰여진 세 번째 복음서는 앞의 두 복음을 기본적으로 활용합니다.

어거스틴의 이론에서는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그것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Matthew-Mark-Luke 연속 의존 이론입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 시대 직후 로마 제국에는 군사적, 경제적 재난이 닥쳤습니다. 읽고 쓰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난 이전에는 그 비율이 최대 80%에 달했고, 서기 300년에서 500년까지 대략 200년 동안 그 이후에는 5%까지 낮아졌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공관문제에 관한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르네상스 종교개혁 시대까지 실제로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Tatian의 Diatessaron, Canon

sies Cepheus, Augustine의 Harmony를 얻었고 이제 우리는 종교 개혁 하모니에 이르렀습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시대에 학술적인 성서 연구가 재개되면서 복음서를 조화시키려는 시도가 다시 시작되었고, 수세기 전에 어거스틴이 했던 일이 다시 생각되었습니다.

문제는 두 개의 유사한 이벤트를 동일한 이벤트로 처리할지 또는 두 개의 다른 이벤트로 처리할지 결정하는 방법이었고 상당히 다양한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종을 연구할 때 생물학자들이 하는 일과 비교하면, 덩어리와 분열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로 모으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분리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음, 우리는 더 최근의 이론을 계속해서 다루겠습니다.

이것들은 1780년경에 포착되어 현재에 이르렀는데, 그 중 가장 초기의 것이 이른바 원시복음 또는 우르복음주의 모델이다. Ur-Evangelium은 라틴어일 뿐입니다. 원래 복음은 그냥 독일어인 거죠, 그렇죠? 이것은 1780년대 레싱(Lessing)과 조금 후에 아이크호른(Eichhorn)에 의해 독립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아이디어는 하나의 독창적인 복음, 우르 복음, 원래의 복음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그것은 아람어인 것처럼 보였고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그로부터 자료를 추출하여 그리스어로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공관복음서 사이의 유사점은 이 세 가지 모두가 이 우르복음을 근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며, 그들이 원래의 복음인 우르복음설, 원시복음 이론을 다르게 편집하거나 번역할 때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한 세기 전에 어거스틴에 의해 제안되었고 지금은 휴고 그로티우스에 의해 부활된 연속 의존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는 하나의 복음이 있고 두 번째 복음이 그것을 활용합니다. 세 번째 복음은 두 번째 복음과 첫 번째 복음을 활용합니다. 이런 종류의 모델은 19세기에 매우 인기가 있었고, 흥미롭게도 당시에는 가능한 모든 주문이 제안되었습니다. Thyssen과 Alfred는 토론에서 큰 문제가 아니며 이를 스케치하고 각 유형에 대한 지지자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어거스틴의 연속 의존 이론은 마태복음이 먼저, 마가복음이 두 번째, 누가복음이 세 번째입니다. 꽤 영향력이 있었던 또 다른 가설은 마태복음이 먼저, 누가복음이 두 번째, 마가복음이 세 번째인 그리스바흐 가설입니다. 우리는 공관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돌아와서 그것에 대해 한두 마디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도 다른 것보다 조금 덜 일반적일 것입니다. 이는 마칸 연속 의존입니다. 마가가 먼저, 누가, 마태가, 그 다음 누가 두 가지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연속 의존 이론. 또 다른 19세기 이론은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가 제안한 소위 단편적 이론이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초기 교회에 기록된 단편, 일반적으로 기록된 일화가 많이 있었고 마태, 마가, 누가 각각 독립적으로 이것들을 모아서 복음서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이어그램의 경우 여기에 아래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으로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는 작은 조각이 많이 있습니다. 다소 유사한 생각이 이들 많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Westcott과 Alfred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기본적으로 구전 전통 이론, 즉 구전 자료가 세 가지 복음서 뒤에 있다는 이론을 갖고 있었고, 그들은 독립적으로 복음서를 활용했습니다. 구전 전통을 기록하고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맨 아래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대한 작은 기록 조각 대신 여기에 전통의 구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공통 기초 공관학이 전적으로 구두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도들은 구전 전통을 연속적인 기록된 이야기로 통합했으며, 전통 자체는 사도들로부터 직접 유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어도 그것을 표현하는 특정 방식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버전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지배적인 것은 소위 두 문서 이론이다. 이는 19세기에 Eichorn, Bernard Weiss 및 HJ Holtzman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오늘날 지배적인 이론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출처 중 하나이고, 다른 출처는 이론에서 Q라는 이름을 따기 위해 나온 서면 출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Q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독일 Quella 소스에서 나온 것이지만 강력한 증거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매우 흥미롭기 때문에 그러한 종류의 정보는 손실될 수 있습니다. 빨리요.

Q와 마가, 또는 때로는 일부 모델에서는 원본 표시인 우르 마쿠스가 출처로 간주되며 마태와 누가는 두 출처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서로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Q와 마가를 사용하고, 누가는 Q와 마가를 사용합니다. 살아남은 Q 원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계획은 가설입니다.

Q는 때때로 Logia라고도 불립니다. 그것은 파피아스가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번역한 로기아(Logia)에 관해 말할 때 이것이 바로 파피아스가 말한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AT 로버트슨이 가장 좋아하는 용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이름은 속담 소스입니다. 우리가 조금 앞서 제안한 것처럼, 마가복음 자료를 포함하지 않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중복은 이야기라기보다는 주로 예수의 말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출처를 말하는 용어가 때때로 사용됩니다.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는 고유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지자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원시 마가 또는 나중에 현대 마가복음으로 편집된 원래 마가인 우르 마가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 글썄, 우리는 여기에 몇 가지 이론을 더 추가합니다. 이에 대해 20세기 초 BH Streeter는 4문서 이론이라고 불리는 2문서 이론의 발전을 제안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소스로 사용된 문서가 두 개 더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Mark와 Q 외에도 Matthew는 자신의 서면 소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Streeter는 이를 M이라고 불렀고 Luke는 자신만의 서면 소스를 가지고 있었으며 Streeter는 L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4개의 소스 문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Matthew와 Luke는 각각 그 중 3개만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특정 모델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마태와 누가의 고유한 자료에 대한 M과 L이라는 용어는 보존되어 있으며 공관복음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여전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관 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에서 M, L, Q는 토론하는 특정 사람들의 자료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며, 이것이 작성된 출처인지 심지어 출처인지 여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블을 지정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특정 자료.

형식비평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좌에서 다루겠지만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이유는 형식비평이 웨스트코트와 알프레드의 구전 전통 이론과 두 문서 이론을 결합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 아래에 마가와 누가가 최종 문서로 있고 그 바로 위에 실례합니다. 마태와 누가가 여기 아래에 있고 그 위에 마가와 Q가 있지만 그 위에는 구전 전통의 큰 구름이 있습니다. . 그리고 이 구전 전통은 그들이 그 전부를 얻거나 전부 사용하지 않았으며, 마태와 누가도 이 두 가지 출처뿐만 아니라 그 전통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Bolton Lawn과 다른 형식 비평가들이 작업하는 경향이 있는 모델입니다. 그들은 두 문서 모델을 받아들이지만, 구전 전통도 떠돌고 있다는 점도 받아들입니다. 음, 여기에 이러한 다양한 이론에 대한 약간의 논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복음주의 이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유사점을 자연스럽게 설명합니다.

그것들은 공통 소스에서 나옵니다. 레싱과 아이크혼은 이 자료가 아람어로 기록된 복음이며 이 아람어 복음은 원본이 아니라고 제안했습니다. 서기 100년 이후 교회에서 아람어가 멸망한 이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복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존되었다.

이런 경향은 역사에서도 나타난다. 외국어로 된 문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언어를 알 수 없는 경우, 특히 번역이 이미 가능한 경우 복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는 중세 시대에 수세기 동안 서방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Ur-Evangelium 이론의 문제점. 우리는 그러한 문서에 대한 직간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고대에 그러한 문서에 대해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고 그 조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제안한 것처럼 그것이 아람어 마태복음이었다면 질문은 '왜 그리스어 마태복음과 그토록 다른가?' 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크에 관한 내용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가들은 왜 이 소스를 그토록 특이한 방식으로 사용했을까요? 때로는 직접 인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의미가 맞아서 문구가 바뀌기도 하고 가끔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람어가 결코 교회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 우리가 시리아어라고 부르는 것으로 흘러갔고 오늘날에도 시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초기 교회에서 사라진 히브리인이라면 더 잘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다양한 합병증을 암시할 뿐입니다. 각 복음서에 고유한 자료를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특히 자료에 명백한 불일치가 있거나 출처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그 내용을 압축한 것이라면 마가복음은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와 같은 내용만 추출했을까요? 그런 종류의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Or Evangelium 이론은 유사점을 잘 설명하지만 차이점을 너무 잘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연속 의존 이론, 장점은 우리가 모든 원본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손실된 문서를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면 원시복음이나 그와 비슷한 것들도요.

문제: 누가 누구에게서 빌렸는가? 다양한 학자들이 세 가지 순서 각각에 대해 어떤 종류의 사례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이유 중 일부는 작가들이 압축을 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이는 고대에 긴 작품의 압축 버전을 만드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파피루스는 비싸고, 양피지는 더 비쌌고, 서기관은 숙련된 노동자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사를 시키려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다양한 역사와 사물이 다양하게 응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때때로 뭔가를 확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더 짧은 것은 응축일 수 있지만 더 긴 것은 팽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자가 원본 서사를 확장했는지, 아니면 압축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언어적 차이는 어떻게 발생했나요? 저자들이 눈앞에 있는 영감받은 복음서만 알고 있었다면 왜 자유롭게 출처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까? 특히 어떤 면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초기 복음서에 없는 자료는 후기 복음서에서 어디에서 왔습니까? 마태복음에 대한 로버트 건드리(Robert Gundry)의 주석도 다소 비슷한 관점을 취합니다.

Matthew는 Mark와 Q를 가지고 있었고 Matthew는 당시 Q에 있었던 Shepherd 이야기를 midrash 스타일을 사용하여 Wiseman 이야기로 수정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영감에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음, 그것은 의존 이론의 성공입니다.

단편적인 이론, 쓰여진 단편. 음, 장점은 누가복음 1.1절에 사용 가능한 많은 기록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정 등을 작성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단편적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완전한 계정을 작성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Schleiermacher는 복음서가 일련의 일화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으며 이러한 일화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예는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같은 날에 여러 가지 사건을 차례로 행하고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종류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양한 출처가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2의 셈어 스타일에서 누가복음 1:2의 헬레니즘 스타일로 전환하는 것을 봅니다. 그의 복음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는 그가 누가복음 1장 2절의 다른 출처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 출처가 아마도 마리아에게서 온 것일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문제 Schleiermacher와 그 이후의 Bultmann은 우리가 그 순서나 역사성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단편의 신뢰성을 경시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나중에 논의할 양식비평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단편적인 형태의 관점에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즉, 소스가 여러 개 있지만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전 전통 이론, 장점, 예수 생애의 사건 등이 사도들의 초기 사역에서 구전으로 제시됩니다. 복음주의 교회에서 전통의 의미는 부정적으로 여러 세대의 전이를 의미하지만 해당 그리스어 단어에서는 그러한 의미가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넘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6세대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부터 직접 전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신약성경에서 전통을 가리키는 용어는 파라디도미 (인계하다)와 파라도시스(인계된 자료)이다. 그것들은 신약성서에 나타나며 전통에 따라 번역될 수 있지만, 출처가 알려지지 않은 길고 흐릿한 역사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스어 의미는 교사가 학생에게 주의 깊게 보호하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넘겨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랍비 학교에서 좋은 학생은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했듯이 그 안에 저장된 재료를 한 방울도 잃지 않는 회반죽 저수조와 같았습니다. 랍비들이 주장한 것처럼 랍비들의 인도가 확실하게 모세에게 돌아갔는지 여부는 2,000년과 30~40번의 이전이 한 가지 문제입니다. 신약성서의 전통이 한 세대, 30세대 이하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구전 전통 모델의 문제점 이러한 가능한 견해는, 신약성경의 유일한 출처가 구술이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 당시에는 현대 속기가 아닌 속기가 존재했으며 법원 사건 등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교육받은 추종자들은 메모를 하고 일기를 쓰는 등의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면과 구두 소스를 결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2개 문서 모델과 4개 문서 모델을 함께 다룰 것입니다. 그들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대부분의 경우 마가의 명령을 따른다는 점에서 마가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와 누가가 마가를 따르지 않으면 어느 쪽도 다른 쪽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와 마태가 마가를 앞에 두고 서로의 복음을 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마태에게는 누가가 없었고, 누가에게는 마태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통해 우리는 왜 이러한 특정 견해가 지배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스바흐는 자료를 거꾸로 설명했는데, 마가 앞에는 마태와 누가가 둘 다 있고, 마가는 마태와 누가가 둘 다 동의한 곳은 따라가고, 동의하지 않는 곳은 한 사람만 따른다고 문제를 설명했다. 아니면 다른 것, 알았지? 그리고 당신은 정확히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흠. 거의 모든 차이 계획은 양방향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것이 항상 복잡한 것보다 빠른 것은 아니며, 다른 문헌에서도 어느 설명이 먼저인지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문서 이론과 4문서 이론의 문제점. 배경 문서 Q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더 나쁜 경우 네 개의 문서 M과 L2에 대한 증거도 없습니다.

파피아스가 그들 중 하나인 Q를 언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들의 존재에 관한 언급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것을 마태를 언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초기 교회가

몰랐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지만, 그들은 단지 어둠 속에서 충격을 가했을 뿐이며, 파피아스는 사도들로부터 온 정보의 한 가닥일 뿐이고 다른 교부들이 접근할 수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완전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파피아스가 마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에는 마가복음을 복사한 경우 특이한 언어적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몇 가지, 종종 사소한 것들을 변경한 다음 다른 표현을 사용했습니까? 누가는 왜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8장 9절까지의 큰 부분을 생략했습니까? 이에 대한 쉬운 합리화는 없습니다. Urmarkus 에서 이 섹션이 누락되었다고 제안하면 또 다른 누락된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 2문서 이론과 4문서 이론은 복음주의자들에게 특별한 문제이고, 바로 이것이다.

마가가 간접적인 사람이고 마태가 목격자였으며 직접 그곳에 있었다면, 사도 마태가 마가를 것처럼 노예처럼 따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터의 회고록 대신에 그 자신의 노트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두 개, 네 개의 문서로 구성된 이러한 견해가 복음의 기원에 관한 모든 전통적, 즉 모든 역사적 정보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승에서는 마태복음이 마가복음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견해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음, 그것이 우리가 공관 문제에 있는 곳입니다.

제안된 솔루션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나는 거기에 없었다. 나는 타임머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기독교가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한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 및 외부 증거를 모두 살펴보면 복음서는 아마도 구전 자료와 서면 자료를 모두 사용했던 전통적인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내부 증거에 따르면 누가와 마태는 어떤

방식으로든 마가를 따랐습니다. 이것에 대한 명백한 모순은 외부 증거에 따르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으며 누가복음도 마가복음보다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글쎄, 나는 마가의 구전 자료가 마태와 누가의 주요 자료이기도 하지만 마태와 누가는 마가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는 모델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작업하나요? 자, 우리는 사도들의 구두 증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종의 화살표가 중앙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들의 주요 대변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그들이 함께 있는 시간에 함께 모여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마태는 사도들이 구전한 이 간증을 활용하여 히브리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기억력을 사용했지만, 다른 사도들이 이러한 문제를 함께 논의할 때 제공한 자료도 사용했습니다.

나중에는 헬라어 마태가 나옵니다. 마태가 직접 번역했는지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한편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에게만 아람어 등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헬레니즘 유대인들로 뿔어 나가기 시작했고, 그런 다음 이스라엘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구전 증언도 헬라어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헬라어 마태가 사도들의 구전 증언을 헬라어 형태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이 큰 화살 반대편에는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는 2년 동안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인터뷰하고, 사도들과 인터뷰하고, 칠십인의 일부는 요르단과 페레아 건너편에 있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이 자료를 종합하고 그 중 일부는 사도들의 사도적 간증이며 그의 복음을 종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의 마가는 베드로가 이 자료를 전하는 동안 함께 있었고 사람들은 그에게 베드로가 말해야 했던 것을 적어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글을 썼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선택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한 사도에게서 직접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글쎄요, 원하신다면 그게 제 모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것보다 더 복잡하지만 실제로는 상세한 서면 문서에 대해 어떤 가정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사도와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종류의 메모를 작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평을 위해 이 모델을 제시할 때 응답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유사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이다. 우선,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가 일부 기록된 보충 자료와 함께 주로 구전 자료를 사용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될까요? 우선, 모든 공관복음은 역사상 일련의 실제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그들 사이의 유사점 중 일부는 그들이 그것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유사점 중 일부는 이러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에 기인하지만, 무술이나 전체에서 특정 사건의 공통 선택을 설명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세 복음서에 걸쳐 20번의 치유가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백, 심지어 수천 번의 치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모두 사도들의 구두 설교와 가르침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도 여러 해 동안 함께 전파하고 가르쳤으며, 그 후에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사도들은 함께 있으면서 예수의 사역 중 어떤 사건이 그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항목을 가장 잘 제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칠 때, 우리는 얼마나 잘 진행됐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해했는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공관복음은 일련의 실제 사건인 그리스도의 생애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모두 사도들의 구두 설교와 가르침에 의존했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함께 모여 여러분이 원할 경우 가장 효과가 좋은 자료를 선택했습니다. 셋째, 마가의 명백한 우선순위는 초기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었던 동안 베드로가 사도들 사이의 대변인이자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 출처는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사도적 증언을 구성하는 자료를 선택하고 형성하는 데 베드로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마태와 누가의 주요 구전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도 사도들 사이에서 내린 결정에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이 양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마가가 없는 마태와 누가, 즉 우리가 단서 자료라고 부르는 유사점은 각각 예수의 구술 교재를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 공관복음 문제를 연구한 사람들은 마태복음의 이 자료가 누가복음의 이 자료와 항상 같은 위치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말과 담화를 블록으로 배열하는 반면, 누가는 이야기 전반에 걸쳐 이를 분산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가 마태를 사용했다고 제안하지만, 누가는 종종 마태와는 다른 맥락에서 이러한 담론을 합니다. 누가는 왜 문맥을 마태로 바꾸었을까? 단서 문서를 가설하는 것의 장점 중 하나는 서사적 맥락이 없는 단서를 보고 이 기능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우리의 말씀을 독립적으로 선택하여 그들의 내용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그런 종류의 계획에 있어서 작가의 창작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예수께서 순회 연설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는 종종 자료를 반복하여 누가와 마태가 항목을 다르게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한 사건을 보고하고 누가는 다른 사건을 누가의 인터뷰에 따라 보고하고, 마태가 누가가 아는 모든

것을 알고 누가 마태가 아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옳다면 누가복음의 페레아 이야기 자료는 누가 페레아에서 사람들을 인터뷰했음을 나타냅니다. 매튜는 그것을 부차적으로 생각했거나 그런 일이 일어난 특정 장소 등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속담은 일반적으로 복음에서 단 한 번만 보고됩니다. 글은 결국 단조로움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작가는 결국 단조로움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책의 길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 제작에는 비용이 매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안하는 바는 마태가 여러 문맥이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곳에서도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하나의 특정 문맥에 두었고 누가도 같은 일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생각은 역사상의 실제 사건이 유사점을 낳고, 제시할 사건의 선택이 부분적으로 사도들 사이의 단일 그룹 과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예수는 순회 연설자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맥락과 약간 다른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순회자입니다. 글쎄요, 원하신다면 저는 순회 설교자였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여러 교회에서 설교하라는 초청을 받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어떤 설교는 계속해서 사용했고 어떤 설교는 한두 번 사용하고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그것을 다듬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당신이 이러한 다른 설교를 테이프로 녹음했다면, 그것은 한 마디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일화를 제공하는 방법이나 꽤 밀접하게 반복되는 내용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유사점 아래 두 가지를 더 언급했습니다.

다섯째, 유대 랍비들의 학생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기계적으로 배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기독교계에서도 행해졌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암기 세계의 교육계에서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그것은 서구에서는 일종의 유행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수 세기 동안 흔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표현,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큰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유사점은 서술자가 이야기할 때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훨씬 더 강합니다. 좋아요, 거기의 큰 유사점은 일종의 암기를 암시합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암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우연한 암기라고 부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성경 구절을 외우려고 여러 번 열심히 노력했지만 언어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코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을 다 읽은 후에는 아마도 75번 정도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몇 구절은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대통령들이 기차를 타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며 연설을 하던 시절 신문 기자들은 대통령 후보의 연설을 5, 6번 정도 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랍비들 사이에는 몇 가지 분명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둘 다 제자가 있었고, 둘 다 때로는 비유로 가르치고, 둘 다 반대자들과 논쟁을 벌였고, 둘 다 랍비라고 불렸습니다. 그리스와 유대 문화 모두에서 학습은 책을 읽거나 메모하는 것보다는 주로 구두 암송을 통해 암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Berger Gerhardsson은 그의 저서 *Memory and Manuscript*에서 이러한 종류의 자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좋은 추억을 갖고 있었고 백과사전처럼 선생님의 말을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논리와 논증, 즉 우리 두뇌가 성장에 따라 연결되는 다양한 방식을 아주 잘 기억할 수 있으며 유전적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성 아래 일부 문서나 메모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복음 1:1-4에서는 기록을 기록한 많은 사람을 언급하지만, 누가는 자신이 이러한 기록 자료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대한 파피야스의 주석은 마가복음이 정확하지만 순서가 아닌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 중에 메모를 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마치 마가가 실제로 복음서를 정확하게 썼지만 순서가 아닌 것처럼 그는 나중에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닌 최종 복음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생각엔 유사점을 이렇게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복음서에는 때때로 사건, 순서 및 단어에 있어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지만 정확히 동일한 사건과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글썄, 보자.

우선, 예수의 가르침은 의심할 바 없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다양한 청중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반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중 일부도 반복되었습니다.

많은 기적, 의심할 바 없이 같은 종류의 질병을 앓는 사람들, 매우 유사한 유형의 치유, 복음서 자체는 일반적으로 그런 종류의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병환자의 치유나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4~5개 정도는 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두 번 있습니다.

기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일이 두 번 있습니다. 군중을 먹이는 일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 중 일부가 반복되었습니다.

셋째, 서로 다른 증인은 동일한 사건의 서로 다른 측면을 보고 강조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도 형제자매들과의 동창회에 가서 일어난 일에 대해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이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다른 항목을 기억하지만 일부 동일한 항목을 기억하지만 동일한 항목에 대해 다른 것을 기억합니다.

대학 동창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나 그와 유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증인은 동일한 사건의 서로 다른 측면을 보고 강조합니다.

넷째, 동일한 사람이 구두로 반복하는 경우에도 여기서 관찰되는 언어적 변화가 규칙적으로 발생합니다. 시제의 무작위 변화와 그런 종류의 것들과의 놀라운 유사성. 내 생각엔 우리의 마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결국 본질적으로 어떤 종류의 테이프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언어적으로 작동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 완전히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는 항목과 다른 절을 넣은 항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작업을 수행하여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진 랍비의 구전 전통의 경우, 작은 연결된 사슬을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500년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태가 40년대에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적는 것과 그런 것 사이에는 여전히 약 10년 동안 구두로 반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태가 구두로 반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유사점은 사도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제와 표현의 변화는 개인적인 차이와 개인의 반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특징입니다. 작가들이 말하고 있고, 어쨌든 연설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정에서 동일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복음서 작가들은 예수의 말씀을 항상 전달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 많은 말씀은 어쨌든 그리스어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길이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복음서 저자들은 단지 부유한 엘리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폭넓은 의사소통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세푸스 20권의 고대 유물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건과 담론을 선택하고 요약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길이가 그리 길지 않았고 꽤 비쌌습니다.

복음 메시지는 당시의 매체 서적 스타일과 경제로 압축되었습니다. 물론 요약에서는 세부사항을 생략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정확합니다. 여섯째, 아마도 복음서 기자들은 상대방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커리큘럼 조건과 연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정 사도가 주변에 없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들은 확실히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요한 자신이 한 장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0장, 31장을 선택하여 기록을 제한하고 의도한 바를 강조하기 위해 자료를 선택했습니다. 이야기를 일반화하고 모호하게 요약하면 이야기가 단조로워집니다. 생생함을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사건이나 설교의 핵심 문장만 선택하더라도 대화를 구체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 TV 뉴스 진행자들이 사운드 바이트를 사용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렇다면 유사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셋째, 이것이 영감과 어떻게 들어맞는가?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라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그것과 들어맞습니까? 글썄, 보자. 우선, 영감에는 받아쓰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작가의 스타일이 진실성을 잃지 않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받아쓰기보다 더 나은 일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는 원하신다면 그 자신의 손가락으로 무엇이든지 돌 위에 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일부 선지자들에게 몇 가지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영감, 즉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가르쳐졌듯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으며 아마도 사건을 선택하는 서술자와 사무엘과 열왕기와 역대기의

서술자와도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감은 일부 받아쓰기를 배제하지 않지만 영감은 어림수와 같은 대략적인 언어와 일치합니다.

요약과 일치합니다. 저자가 연대순을 선호하지 않고 원하는 경우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연대순이 아닌 배열, 주제 또는 무언가와 일치합니다. 물론 그것은 모순이나 명백한 연대기적 오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자가 제공하지 않은 이야기에서 요점을 추출하려고 한다면 요약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적대적인 비평가, 평론가, 평론가 등이 그 사람 자신이 실제로 모순되지 않는 어떤 것에서 모순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선거 캠페인에서 그것을 항상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일반적인 특징일 뿐입니다. 작가는 연대순이 아닌 논리적 배열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명시적으로 말할 의무는 없습니다.

영감은 그 기록이 조화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지만, 그 기록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은 조화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조화시키기 위해 하늘과 땅을 움직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일을 할 만큼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2~3가지 가능성, 심지어 5~10가지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지만 어느 것이 옳은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예는 피터 등의 세 가지 부정을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자료를 조화시키기 위해 여섯 가지 부정을 제시하는 한 작가를 알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해롤드 린제이입니다. 그의 책 중 하나에 Harold Lindsay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기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 계획은 적어도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에 Peter가 주변에 여러 사람이 "그래, 이건 어떡하지?"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서술자는

한 사람을 선택하고 다른 서술자는 다른 사람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감은 계시된 교리입니다.

우리는 알려진 모든 어려움을 귀납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성경에서 영감을 얻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추론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자들이 인도를 받았다는 것과 예수와 사도들과 선지자들 등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무오한 것으로 취급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서 무오성을 이끌어 내는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 자신의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 그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모든 질문을 받아들이기 전에 대답할 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명백한 불일치를 쌓은 다음 이들 중 적어도 하나가 진짜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술이 그리스도의 무죄하심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항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진실이라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며,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을 수 있으므로 단일 사건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경전이 초자연적인 근원에 대한 긍정적인 증거를 제시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역사적 정확성을 테스트할 수 있을 만큼 인상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공관 문제는 바로 여기까지이고, 내 생각에는 그 특정 지점에서 그만둘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